**KT 면접 예상 질문 준비**

Q. 1분 자기소개

* 안녕하십니까! IT 컨설팅/수행 지원자 백승찬입니다. 면접관님, 저는 저를 물건에 빗대어서 3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펀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쉽고 빠르게 흡수하는 것처럼, 학부생 시절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하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IoT, VR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빠르고 방대하게 쏟아지는 IT 기술 속에서 이러한 습득 능력과 배우려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배움의 자세가 준비된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IT 컨설팅/수행 지원자 백승찬입니다. 면접관님, 저는 친구들로부터 ‘악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악바리 같은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12번의 입찰 제안에 도전하였고 11번 연속 탈락한 끝에 1번의 입찰을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맡은 임무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행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왜 KT에 지원하였는지? KT여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평소 IT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IT 기술이 바탕이 된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여, 제가 만들어낸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KT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아직 상용화 되지 않은 5G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5G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VR, 자율주행 등이 새롭게 구현되는 것을 목격했을 때, KT에서 근무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또한, KT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서비스 실현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기에 다른 ICT회사가 아닌 KT에 지원하였습니다.

Q. 스타트업을 관둔 이유가 무엇인가?

* IT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서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는 인원, 자본 등의 제약이 많아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고, 제가 목표하는 바에 한단계 더 가까워지고 싶었기에 스타트업을 관두고 KT에 지원하였습니다.

Q. 마지막 하고싶은 한마디?

* 지난 3월 평창에서 KT 융합기술원 직원 분과 함께 새벽까지 같이 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KT 직원 분이 맡은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저희의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구분 없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였고 이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었기에 당시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팀원과 협력하고, 헌신하는 융합기술원 직원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KT의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